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농수산물식품 수출 확대 협력 잇따라

미국 방문 김관영 지사, 한남체인 이어 최대 韓 농식품 유통체인 H마트와 협약 체결... 풀무원 현지법인과도 협력

미국 출장길에 나서고 있는 김관영 전라북도지사가 미국 최대 한국 농식품 유통체인 업체와의 수출 확대 업무협약 체결을 성사시켰다.

김관영 도지사는 26일(현지시간) 미국 최대 한국 농식품 유통체인 H마트 서부지역본부를 방문해 이상철 H마트 서부지역 총괄부사장과 전북 농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H마트는 1982년 미국 동부에서 설립돼 현재 미국 14개 주에 걸쳐 70개 매장과 5개의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미국 최대 한국 농식품 및 아시아 식품 슈퍼마켓 대형 체인점이다.

H마트는 연간 매출액 약 20억 달러(한화 약 237,000억원)에 이르며 2014년에는 미국 소매점 매출 순위 13위에 오르기도 한 기업으로 최근 한류 열풍에 힘입어 매장 방문객 중 교민 외 타인종 고객 비중이 70%를 넘어서 글로벌 유통체인점으로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라북도 농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기념하여 H마트는 전라북도 농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유통정보교환, 유통상품 개발, 마케팅 지원 등 분야에 상호 긴밀한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김 지사는 이날 또 풀무원 미국현지법인인 풀무



전라북도 농수산물식품의 해외 판로개척을 위해 세일즈에 나서고 있는 김관영 도지사는 26일(미국 현지시간) 미국 최대 한국 농식품 유통체인 H마트 서부지역본부를 방문해 이상철 H마트 서부지역 총괄부사장과 전북 농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전북도청 제공)

원USA 본사를 방문해 조길수 대표 등 임원진을 만나 미국의 유통망 등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전북 식품산업의 발전 방향을 탐색했다. 풀무원은 지난 2019년 5월 전라북도 익산에 글로벌 김치공장을 세우고 이

곳에서 김치를 생산해 전 세계로 김치를 수출하고 있으며 매년 11% 이상 성장하고 있는 미국 내 김치시장에서 미국 소매점 비중이 22.4%를 차지할 정도로 시장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다.

풀무원은 또 최근 한국에서 생산한 비건 김치를 입점 판매를 시작하자 2년 만에 젓갈로 맛을 낸 전통 김치를 월마트에 입점시키고 미국 주류 김치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경수 기자

‘정책 보물을 찾아라’

도, 도민 정책제안 첫 운영

전북도(도지사 김관영)는 도민들의 민선8기 도정 정책에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자 정책제안서 만들기 실습과정인 2022 정책보물찾기 과정을 운영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도민정책참여단을 비롯해 전북소통대로의 서포터즈, 도청 MZ세대로 구성된 주니어보드 등 50여 명이 참여했다.

도에서 처음 시도하는 이번 행사는 도민이 발굴하고 요구하는 제안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고 정책 제안서로 작성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다.

이날 1부에는 도민정책참여단 운영과정과 각종 공모사업에 대한 제안서 작성사례, 정책화 사례를 전달했다. 이어진 2부에서는 본격적

으로 토론 도우미들과 개인별 제안서 만들기 실습을 진행했다.

특히, 도민 파우에 의뢰한 ‘청년·신중년·여성 일자리 발굴’과 ‘전라북도 삶의 질 제고 방안’이라는 주제로 과정을 진행해 참여자들에게 실생활에서의 정책 제안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는 계기가 됐다.

참여자들은 6개 조로 나눠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제시하며 3시간 동안 열린 토론을 벌이고 각자의 생각과 의견을 담아 형식을 갖춘 제안서로 만들었다.

강승구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정책 보물찾기 행사는 도민의 의견을 구체적인 정책 제안으로 만드는 능력을 기르는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전북도에 의미있는 정책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제안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경수 기자

패러글라이딩 월드컵, 내달 1-8일 고창서

패러글라이딩 월드컵 대회가 다음달 고창에서 열린다.

전북체육회(회장 정강선)는 10월 1~8일까지 고창 방장산 활공장 일원에서 2022 패러글라이딩 월드컵대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PWCA(패러글라이딩월드컵협회)가 주최하고 대한패러글라이딩협회와 고창군패러글라이딩협회가 주관하는 이

번 대회에는 미국과 호주, 독일, 헝가리, 영국, 스위스 등 22개국에서 약 300명의 선수와 임원이 출전한다.

경기는 크로스컨츄리(장거리) 종목이며, 설정된 코스에 맞게 선수들이 비행, 순위를 가리게 된다.

한편 국제대회가 고창에서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장은성기자 · 고창=김영식기자

도지사 관사, 도민 품으로... 전시공간 활용

도, 도민 의견 수렴 결과 김관영 도지사 공약 실천 도의회 예산 확정시 빠르면 내년 하반기 개방



구 전북도지사 관사 전경.

전북도지사 관사가 전북 도민의 품으로 돌아간다.

전북도는 27일 관사 활용방안에 대한 도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도지사 관사를 전시공간으로 전환해 활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27년간 도지사 관사로 사용했던 공용건물은 김관영 도지사의 결단에 의해 도민들과 관광객들을 위한 전시공간으로 재탄생하게 됐다.

김 지사는 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중간보고회와 취임 직후 인터뷰 등을 통해 “역대 도지사가 사용했던 관사를 도민에게 돌려주는 게 도리이며 활용 방안 역시 도민의 뜻을 모아 정하겠다”는 뜻을 꾸준히 밝혔다.

김 지사의 결단에 따라 도는 지난 7월 13일부터 8월 12일까지 한 달 동안 ‘전북 소통대로’ 인터넷 플랫폼과 전자우편, 일반우편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해 관사 활용방안에 관한 도민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 전시관과 게스트하우스, 영빈관 매각 등 다양한 제안이 접수됐으며, 그중 전시관 활용방안이 다수 의견을 차지했다고 도는 전했다.

도는 도민의 제안을 바탕으로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계획을 가다듬었고, 최종적으로 구 관사를 ‘전라북도 생활사’와 ‘민선도지사의 집무 체현’을 주제로 하는 소규모 전시공간으로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구 관사 1층에는 ‘생활사 박물관’이, 2층에는 민선도지사의 역사를 담은 도백의 집이 들어서게 됐다. 운영시간 이후에는 도와 도의회의 기업유치 활동 등을 위한 외부용 회담

장으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도는 관사 활용계획 수립 과정을 소통과 협치의 도정을 실현하는 무대로 삼았다는 설명이다. 도민 의견을 중심으로 활용 초안을 수립했고, 의회와는 상임위 협의와 현장 방문을 추진해 관사가 완벽하게 도민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했다는 것이다.

김미정 도 자치행정국장은 “도민의 의견을 반영한 관사 활용계획을 도의회와 인근 주민들도 긍정적으로 반기고 있다”면서 “활용계획이 최종 결정된 만큼 도민의 공간으로 조속히 전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전시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비를 2023년 본 예산에 편성할 계획이며, 예산이 확정되면 △세부본편 조결정 및 설계 △행정절차 △구조보강 공사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개방한다는 방침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관사를 도민에 환원하고 도민의 의견을 들어 활용방안을 결정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게 됐다”며 “지혜를 모아주시는 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이제 관사는 도지사의 집이 아닌 도민 모두의 집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경수 기자

국립전주박물관 정원, 시민에게 개방

유물 보호 위해 설치된 담장 철거... 시민공원으로 조성 야외 정원 개방시간은 오후 10시까지... 제2주차장 사용



국립전주박물관 야외 정원

국립전주박물관(관장 홍진근)은 청사와 유물 보호를 위해 설치돼 있던 박물관 담장을 철거하고, 정문 주변을 정원화해 시민들에게 개방한다고 밝혔다.

27일 박물관에 따르면 2021년 민간 소유의 주유소 부지 매입을 계기로 정문 주차장 주변 개선 공사를 통해 잔디정원을 조성하고, 박물관 담장을 철거해 전시실 외부 정원 전체를 시민을 위한 공원으로 조성했다. 이번 정원 조성 사업에는 주유소 부

지의 녹지화, 주차장 정비, 박물관 담장 철거와 함께 야외카페와 야간 조명, 벤치 등 편의시설들을 대폭 확충, 이를 통해 주차장에서 전시실까지의 접근성 개선은 물론, 야외 정원의 야간 개방으로 시민들의 저녁 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국립전주박물관 야외 정원 개방 시간은 오후 10시까지며, 개방 시간에 맞춰 제2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다. 박물관을 중심으로 하는 전주 시내버스 999번 노선을 이용해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다.

홍진근 관장은 “저녁시간대 정원 개방으로 박물관에서만 느낄 수 있는 정취를 느낄 수 있을 것”이라며, “개관 이래 처음 낮은 담장을 통한 열린 박물관으로 쉽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쉼터를 제공하게 돼 기쁘고, 박물관 정원이 전주 시민의 특별한 공간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듣습니다.
빈 칸을 여러분의 아이디어로 채워주세요.

분야 | 연금제도 개선에 대한 자유 제안(금)
기간 | 2022. 9. 15.(목) ~ 11. 15.(화)

접수방법 | 온라인 및 우편 접수

- 온라인: 우측 QR코드 및 국민연금 온에어 사이트(npsonair.kr)
- 우 편: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80 행복연금관 8층 국민소통실

의견 남기기